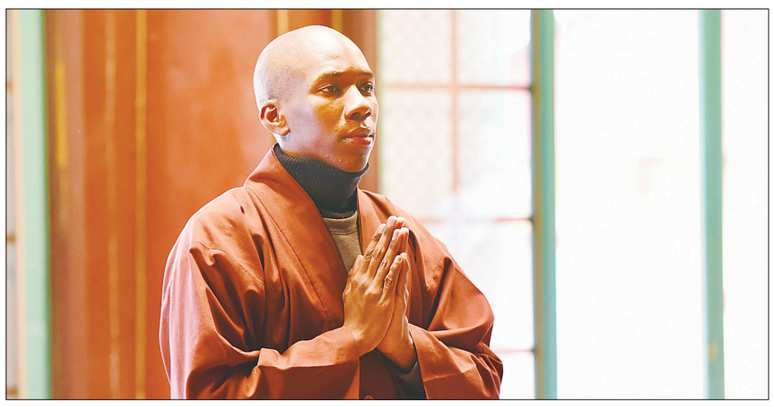
탄자니아 첫 출가자, 무명초 자르다

백양사, 지미 존 행자 삭발식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 출신
한 달간 행자로 백양사 생활
"학업 마치고 정식 출가할 것"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재학생인 지미 존 므와카툼불라가 백양사에서 출가해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불교 전법의 인연을 맺은 지 10년 만에 현지 출신 첫 출가 예정자가 나왔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4월 6일 대웅전에서 탄자니아 출신 지미 존 므와카툼불라(22)의 행자 삭발식을 봉행했다. 지미 존 행자는 조계종이 설립한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재학생으로, 불교에 귀의해 수행자의 길을 걷기 위해 한국을 찾아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삭발식에서 주지 무공 스님은 "오늘 출가하는 행자가 수행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 멀리 탄자니아에서 한국에 와 부처님께 귀의한 만큼 낯선 환경 속에서도 수행자의 길을 성실히 걸어 훌륭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언어와 음식 등 여러 어려움 또한 수행의 과정으로 삼아 정진하고, 부처님과 대중 앞에 서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지미 존 행자는 삭발에 앞서 고국 탄자니아를 향해 부모님께 삼배를 올리며 출가를 알렸고, 이어 대중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린 뒤 삭발 의식에 임했다. 무공 스님은 삭발의 의미에 대해 "앞에서부터 깎는 것은 깨달음을 먼저 이루고 수행을 이어가는 의미를, 뒤에서부터 깎는 것은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달아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인연 따라 수행과 깨달음을 함께 이루어 가라는 뜻에서 중앙부터 삭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삭발을 마친 지미 존 행자는 "행자가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다"며 "스님이 된 뒤에는 탄자니아로 돌아가 불교를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발원했다.

지미 존 행자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원예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교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익혀 지난해 말하기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한국에서 불교를 접한 뒤 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출가를 결심했으며, 가족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입국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5일 지미 존 행자의 예방을 받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과 수행의 과정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며 "스님이 되면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지미 존 행자는 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지부 법인처장 선정 스님의 지도로 매일 새벽예불과 염불, 목탁 습의 등에 정진하고 있다. 한 달간 백양사에서 행자 수행을 이어간 뒤 탄자니아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식 출가 수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형 대종사 가르침, 이어가겠습니다"

대흥사서 영결 · 다비식 엄수
"평생 강맥 이은 대강백" 추모



전 대흥사 주지 계월당 도형 대종사의 영결식이 4월 8일 대흥사 보현전에서 엄수됐다.

한평생 교학과 수행으로 후학을 길러온 대강백의 마지막 길이 두륜산 자락에서 엄숙히 이어졌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 스님)는 4월 8일 경내 보현전 일원에서 계월당 도형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명예 원로의원 암도 스님, 조실 보선 스님,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해 보각·월우 스님과 문도, 신도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주지 법상 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께서는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두루 섭렵하며 교학의 깊이를 다지셨고, 이후 강주로서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한 삶은 한국불교 교학사의 한 축을 이룬다"며 "특히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대학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청년과 어린이, 재가불자들이 함께하는 도량을 구현한 것은 살아 있는 불법의 실천이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제자들의 수행과 중생을 향한 자비실천 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실 보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스님과의 인연은 60여 년에 이른다"며 "스님께서 산중에 머무르며 두륜산의 가풍을 바로 세워 사부대중이 수행과 정진의 길을 올바르게 걸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두륜산의 밝은 달은 더욱 빛나고, 그 달을 따르던 이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두륜산 마루에 다시 달이 오른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월우 스님은 조사에서 "보현전에서 영정을 마주한 사제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님의 가풍을 다시 한번 대중 앞에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제자들도 그 강맥을 이어 화합과 수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도대표 정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정상 스님은 "스님께서는 말년에 '육자대명왕 진언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 하시며 평생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이 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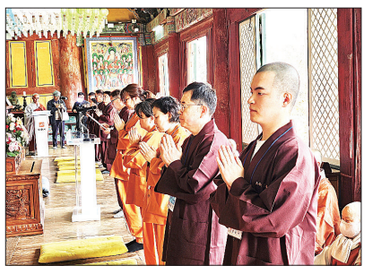
영결식을 마친 뒤 법구는 인로왕번을 선두로 명정과 불번, 위패와 영정, 법주와 상좌, 장의위원, 사부대중이 뒤따르는 장엄한 행렬 속에 2km 떨어진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이어 연화대에 안치된 법구는 거화와 함께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도형 스님은 대흥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암사에서 사미계를, 1967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과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대흥사 강주로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4월 6일 원적에 들었으며 법납 67년, 세수 78세다.

해남 대흥사=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단기출가학교 2기 고불식

4월 3일 남성 7명 · 여성 4명
9박 10일간 수행자 삶 체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3일 대웅보전에서 '선운사 제2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 고불식을 봉행했다. 2기 과정에는 12세 청소년부터 71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1쌍의 부부 등 남행자 7명, 여행자 4명 등 총 11명이 입교했다.

참가자들은 4월 1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수계 의식, 새벽예불, 사찰 예절, 부처님 생애 학습, 초발심자경문 강의, 명상, 108대참회, 참선 등 엄격한 수행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주지 경우 스님은 부주지 운천 스님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단기출가학교는 멈춤의 자리이자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작"이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듯 이곳에서의 경험은 절대 짧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수행하는 도반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길 바란다"며 "오늘 내딛는 첫 발걸음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밝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평온함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출가는 익숙한 나를 부수고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위대한 선언"이라며 "정보는 넘쳐나고 연결은 촘촘해졌지만, 영혼은 고립되고 빈곤해진 과잉의 시대에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 어린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문사 명성 스님, 동국대에 1억원 쾌척

로터스관 건립 기금으로 전달
교수 스님들도 2000만원 기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4월 6일 죽림헌에서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 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동국대 동문인 운문사 교수 스님들도 뜻을 모아 2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문사 대중의 귀한 정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주 명성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교육과 수행의 균형 속에서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좋은 곳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동참한 교수 스님들 역시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재가 불자 교육까지 아우르는 불교 교육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성이 불교 인재 양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로터스관'은 202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 △선센터 △러닝 커먼스 △대형 교육공간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평소 비구니 승가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한 명성 스님의 원력 어린 보시에 깊이 감사하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로터스관을 건학 이념이 구현되는 최고의 교육 도량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수산당 지종 대종사 부도탑비 제막

불갑사, 14주기 다례재서



영광 불갑사(주지 법상 스님)는 4월 2일 고불총림 3대 방장을 역임한 수산당 지종 대종사의 열반 14주기를 맞아 부도·부도탑비 제막 및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과 원로 진공·수인·명공·원진·정연 스님, 내소사 조실 철산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염불원장 도성 스님 등 백양사 문도 스님들과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대종사의 수행과 원력을 기렸다.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문도제자들을 중심으로 부도탑비 조성을 결의하고, 문도 스님들과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원만히 회향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대종사를 모실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리탑비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탑비를 모본으로 익산 황등석과 보령 운천 오석을 사용해 조성됐으며, 비문은 원각 스님이 짓고 나익환 장인이 새겼다.

수산당 지종 대종사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불교종립 정광학원 이사장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1998년 불갑사 선원을 개원해 수행도량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불갑사 복원불사와 영광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성역화 불사에 기여했으며, 2004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추대됐다. 2012년 3월 7일 불갑사에서 법납 73세, 세납 91세로 열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템플스테이 '새 단장'

리모델링 거쳐 5개월 만에 재개장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템플스테이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운영을 재개했다.

화엄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리모델링을 마치고 템플스테이를 다시 열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머무는 이들의 체험과 감각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연수국장 연우 스님은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머무름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두었다"며 "숙소와 공용공간을 정갈하게 정비하고 동선을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소한 불편이 사라진 자리에서 고요함이 더욱 또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리모델링은 화엄사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연과 건축,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구성으로, 방문객들이 보다 깊이 있는 휴식과 성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문을 연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사찰음식 체험과 차담, 명상 등 전통 수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회 용화사 동요대회 성료

4월 3일 10개 어린이집 참가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의 만개한 벚꽃 아래 천진불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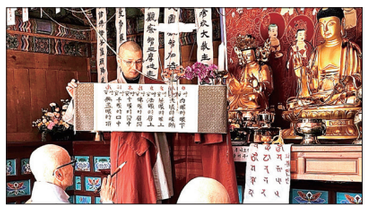
용화문화교육원은 4월 3일 용화사 특설무대에서 '2026년 무심천 용화사 벚꽃축제와 힐링콘서트' 일환으로 '제1회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지역 10개 어린이집이 참가한 가운데 원아와 학부모, 교사 등 160여 명이 함께했다.

범성 스님은 주지 각연 스님을 대신한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경쟁보다 어린이들이 준비한 무대를 마음껏 펼치는 자리"라며 "즐겁게 노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연에서는 10개 어린이집 다양한 동요 무대를 선보였다. 심사 결과 대상은 보리수어린이집, 최우수상은 365열린어린이집, 우수상은 시립율량3어린이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인기상은 용정어린이집, 장려상은 선광키즈어린이집·롯데캐슬키즈어린이집·서청주어린이집·목령어린이집·서광어린이집·용암어린이집 등 6개 팀이 수상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문경 대승사, 아미타여래좌상 불사 회향

4월 5일, 극락전서 점안식



문경 대승사(주지 효원 스님)는 4월 5일 극락전에서 금동아미타여래좌상(보물) 중수·복장·개금불사를 원만 회향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성취를 찬탄하고 공덕 회향의 뜻을 함께했다.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대승사를 대표하는 성보로, 오랜 세월 금박층 마모와 균열, 칠층 내부의 기포와 들뜸 현상이 나타나 보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주지 일균 스님이 2024년 보존처리 불사를 시작했다.

대승사 수좌 의성 스님은 법문에서 "진정한 점안은 부처님의 눈이 되어 중생의 아픔을 보고 치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덜어주는 수행자의 삶을 발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